

## 초등학교 국어과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도영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제64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7. 8. 2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신 부산교대 박수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I. 머리말
- II. 국어과 임용 고시의 실태와 문제점
- III. 국어과 임용 고시 개선 방안
- IV. 맺음말

## I. 머리말

교원을 시험으로 선발하기 시작한 것은 1991학년도(1990년)부터다. 다음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교원임용고시제 파문 전국으로 확산

기사입력 1990-10-18 19:38

일부사대생, 항의시위. 교수 특별성명발표 수업·시험 거부 결의, 철야농성 학생도

“대학을 입시학원화, 국가독점 처사”

(서울=聯合) 문교부가 내년부터 실시기로 한 교원임용고시제를 둘러싸고 일부 사대·교육대 학생들이 18일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교수들이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서울대사범대 학생 5백여명과 부산교대 5백여명은 문교부 방침에 항의, 무

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으며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광주교대생 등 1천여명은 ‘교권장악음모분쇄 및 완전발령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조치는 정권의 교육장악 음모를 관철시키려는 술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대 사범대와 제주교대 학생 5백여명도 이날 하오 도교위에 몰려가 교원임용고시제 철폐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서울교대 교수전원은 정부의 교원임용고시제가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부산지역 미발령 교사 5백여명은 이날 하오 부산시교위에 몰려가 철폐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3일째 학생회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사범대생 5백여명은 하오 2시께 교내 도서관 앞 광장에서 ‘교원임용고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선포식을 갖고 이날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집회에서 “문교부의 교원임용 고시제는 대학을 입시학원화 해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임용고시제 철폐, 문교부장관 퇴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서울교대 교수 81명 전원은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더라도 문교부 요강에 따라 입학한 2.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까지 임용고시제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국가와 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일으켜 교수들의 교권마저 실추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교육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공개전형제도 배제, 국립교대만의 초등교원 양성’ 등을 촉구했다.

(중략)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교부는 시험을 강행하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항의가 있었지만 모든 정책 실행이 그러했듯이 교원 임용 고시 제도는 정착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틀림없이 공과는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공’보다는 ‘과’에 초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지필 평가는 특정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모든 지필 평가는 없어져야 한다. 이는 현재의 현실에서는 당장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감

안하여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국어과 임용 고시 지필 평가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현재의 모습을 살피기 위해서는 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해야 설득력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II. 국어과 임용 고시의 실태와 문제점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필 평가는 1990년에 시작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시험 출제를 위탁 의뢰하였고, 2000년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받아 주관하고 있다(전제상, 2016:2). 본고에서 살펴볼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200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의 문항이다. 그 이전의 문항도 검토해야 마땅하나 구할 수가 없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다음부터 비로소 지필 평가가 체계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1. 국어과 임용고시의 실태

평가원 주관 시험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1기는 2001학년도에서 2008학년도까지이며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2기는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이며 ‘5지 선다형(1차) + 서술형·논술형(2차)’으로 이원화하였다. 3기는 2013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이며 1기처럼 ‘단답형 + 서술형’ 체제이다.<sup>1)</sup>

---

1) 이는 국어과 내부 사정이 아니라 교원 임용 선발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대체로 모든 문항은 대문항 아래 소문항을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sup>2)</sup> 1기 때는 대문항이 1~3개였다. 3기는 현재까지는 대문항 3개로 고정되어 있다. 소문항 수는 3문항에서 10문항까지 다양하다. 1기에는 3~6 문항이었는데, 3기에는 7~10 문항으로 늘어났다. 이는 배점<sup>3)</sup>과 대문항 수와 관련이 깊다. 1기보다 3기가 배점이 약간 높고 대문항 수가 전반적으로 많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소문항 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문항의 크기도 커졌다. 2001학년도에는 8점 배점에 소문항 3개를 1면에 출제하였다. 10점 배점에 소문항 수가 6개였던 2008학년도에도 1면 출제였다. 지금은 11점 배점에 2면 반이다. 소문항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문항을 푸는 데 필요한 자료의 양이 많아졌다. 많아진 만큼 문항의 형식적인 완성도는 더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읽어야 할 글자 수가 많아져서 푸는 시간이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

문항의 형태는 ‘대문항 문두 + 문항 출제 자료 + 소문항 문두’가 기본 형태이며, 여기에 소문항을 푸는 데 필요한 자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1기 때의 문항 출제 자료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교육과정 해설, 교과서 제재 글,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교사용 지도서 부록에 수록된 교수 학습 모형, 학생 글’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문항 출제 자료의 다변화는 2기 때부터 시작되었다. 면담 자료(2009학년도), 교사들의 대화(2009학년도), 학생 관찰 기록(2010학년도), 단원 수업 지도 계획(2010학년도), 수업 발문 계획(2010학년도), 교사와 학생의 대화(2011학년도), 영역 통합 수업 계획(2011학년도), 학생들이 조사

---

는 전제상(2016 : 2)을 참고할 것.

- 2) 2기는 1차가 5지 선다형이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2차는 ‘대문항 + 소문항’ 체제이다.
- 3) 2001학년도 당시는 총 8점이었다. 2002~2003학년도에는 9점, 2004~2008학년도에는 10점이다. 2기 1차 5지 선다형 때는 문항당 1.4점이었고, 국어과는 6문항을 배정받아서 총 8.4점이었다. 2차 서술·논술형 때는 1문항을 출제하였고 배점은 8점이었다. 3기는 배점이 11점이다.

한 자료(2011학년도), 교사의 자기반성(2012학년도) 등 매우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3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3기에 새로 등장한 자료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2014학년도), 학생의 사고 구술 자료(2016학년도), 학급 회의(2017학년도) 등이다. 예전과 다른 3기 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출제 자료의 정교화이다. 같은 수업 계획이라도 3기 때는 좀 더 세분화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국어 수업 계획을 ‘단원 학습 목표 + 내용 성취 기준 +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 본시 학습 목표 + 읽기 제재 + 본시 수업 연구 자료’ 등 7가지로 구성하여 출제된 2015학년도에 출제된 문항이다.

1기 때는 국어과의 여섯 영역을 모두 출제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압력이 없었다. 2001학년도는 읽기 영역만 출제되었다. 2002학년도부터는 대체로 2개 영역 이상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었다. 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이 많이 출제되었다. 문법은 2번 출제되었고, 문학 영역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2기 때는 6문항을 5지 선다형으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영역 편중 및 배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3기 때는 앞서 언급한 대로 3개의 대문항 구성 형식이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특정 영역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듣기·말하기, 읽기, 문학’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쓰기 영역이 대문항의 중심이 된 적은 한 번(2015학년도)밖에 없었다. 문법은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평가 내용은 출제 문항 자료와 관련이 깊다. 앞서 언급한 문항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했듯이 1기 때는 ‘교육과정(해설)의 내용, 교과서의 구성 체재와 원리, 교과서의 활동 구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 방식, 교수 학습 방법(모형)’ 등이 주된 평가 내용이었다. 2기 때는 학생 지도 방안과 교사의 교수 방법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생 반응의 문제점을 직접 분석하는 유형의 문제도 이때에 등장하였다. 3기는 앞선 시기의 평가 내용을 거의 다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수업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3기 때에 특징적으로 추가된 것 중 하나는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제재 글에 대한 이해력 문항들이다. 이는 문학에서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

다. 교과 지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도 제법 출제되었는데 문법 영역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지도 방법과 교사의 교수 방법 관련 문항이 대다수이고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도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평가 영역에 대한 문제는 많지가 않았다.

## 2. 국어과 임용 고시의 문제점

관점에 따라서는 현행 문항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국어과 다섯 영역을 비교적 골고루 평가하고 있고, 학생 지도 방법과 교사의 교수 방법을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도 크게 흠을 잡기가 어렵다. 하지만 약 10년 전의 임천택(2008)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임천택(2008: 326-328)은 2008년~2009년 초등국어 임용고시 문항이 초등국어 교사의 자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초등국어 교사의 자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자질 요소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자질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초등국어 교사의 자질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초등국어 교사의 자질 범주 중 ‘기능’ 영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선다형 문항을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항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초등국어 교육의 실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질 요소가 통합적으로 요구되는 응용 문항이 많이 출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임용고시 문항과 답안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장기적인 개선회로 수업교사제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중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은 서술형 문항 출제밖에 없다. 가장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는 평가 내용의 타당도는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 국어과 지필 평가의 문제는 거의 모두 다 초등 교사의 국어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데에 기인한다. 최근 3기의 문항들을 중심으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이 독해 문제화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문항(2016학년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 말하는 이의 의도를 고려하여 (가)의 ㉠과 다음 대화 ㉡의 차이점을 쓰시오.

[1점]

(가) 대부분의 일회용품은 오랫동안 썩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 혹시 종이컵이 땅속에서 썩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종이컵은 땅속에서 썩는 데 20년이 걸리고, 스타이로폼 도시락은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 A : 그럼, ㉡ 혹시 종이컵이 땅속에서 썩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B : 네. 종이컵은 땅속에서 썩는 데 약 20년 정도 걸립니다.

문항에서 (가)는 연설인데, 연사가 연설 도중에 ㉠처럼 말하고 직접 답을 한다. 대화에서 ㉡는 진짜로 궁금해서 묻고 있다. 이러한 문항을 푸는 데는 일반적인 독해 능력만 있으면 된다. 문제는 이러한 문항들이 다수 있다는 점이다. 글의 수준도 문제다.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재 즉, 초등학생 수준의 글이나 문학 작품을 주고 그 내용을 묻고 있는데, 문항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수능보다도 훨씬 쉽다. 이런 유형의 문항은 초등 국어 교사가 지녀야 할 전문적인 자질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다 보니 초등임용고시 준비생들은 초등 국어과 시험공부를 다른 교과보다 덜 하게 된다. 시험 준비생들

처지에서 보면, 위와 같은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초등 국어과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문항 유형이다.

둘째, 국어 교육 또는 국어 수업 상황과 관련짓지 않고 단순 지식을 묻는 경향이 있다. 문법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1기와 2기 때는 이런 유형의 문항이 거의 없었다. 3기 때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2014학년도)가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2) 다음은 김 교사가 ㉠과 ㉡을 듣고, 정확한 발음을 지도하기 위해 관련된 음운 현상을 조사한 자료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1 점]

‘맞이’와 ‘굳이’는 받침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둘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 현상은 동일하지 않다. ‘맞이’는 ([ A ])로 발음되는데 이 음운 현상은 ( B )이고, ‘굳이’는 ([ C ])로 발음되는데 이 음운 현상은 ( D )이다.

초등 국어 교사는 음운 현상을 알긴 알아야 한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지도하기 위해서 음운 현상 명칭을 꼭 알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위의 문항을 답하기 위한 지식은 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다 배운 것이다. 초등임용 준비생들은 아마도 수능 시험을 볼 때 음운 현상을 공부했을 것이다. 문제를 못 풀었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음운 현상의 명칭을 알아도 이 명칭을 초등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제로 교과서에 이러한 명칭들이 노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 지식을 직접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임용고시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 중고등학교 때 배

은 지식을 정확히 상기해야 한다. 시험 준비생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 때문에 곤혹스러워 한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 지식을 다시 공부하자니 너무 많고, 안 하자니 걱정이 앞선다. 지식을 직접 묻는 문제는 대개 1점이어서 이런 유형의 공부를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많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문항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과도한 수업 계획의 설정으로 인한 비실제적 문항 설계가 많다. 앞서 국어과 임용고시의 실태에서 언급한 것처럼 3기 때부터 수업 계획이 세분화되고 정교화되었다. 이로 인해 문항 설계가 외형적으로 화려해졌다. 하지만 수업 계획이 과도하여 문항 해결에 불필요한 정보가 다수 들어가게 되었다. 2015학년도에 출제된 다음 문항이 바로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다음은 2학년 국어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4점]

- 단원 학습 목표 : 낱말의 관계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내용 성취기준
  - [1~2학년군] [읽기] -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 [1~2학년군] [문법] -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 1~2차시 : 글을 읽고 낱말의 관계 알기
  - 3~4차시 : 글을 읽고 뜻이 비슷한 낱말과 반대인 낱말 알기
  - 5~6차시(본시) : 낱말의 관계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 본시 학습 목표 : 낱말의 관계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 읽기 제재 : ‘고래가 물을 뿜어요’
- 본시 수업 연구 자료
  - ⋮

자세히 보면 ‘단원 학습 목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의 5~6차시’, ‘본시 학습 목표’가 같은 내용이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형식적 완성도 때문이지 문항을 푸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내용 성취 기준’과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은 문항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는 ‘본시 수업 연구 자료’뿐이다. 나머지는 형식적인 장치에 불과하다. 또한 본시 학습 목표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 설정이다. 낱말의 관계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다. 억지로 읽기와 문법을 통합하다 보니 현실 가능성이 없는 문항 설계가 되었다. 이 문항 외에도 문법과 다른 영역을 통합한 문항들은 대체로 어색하다. 실제를 반영한 압축적인 문항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서술형보다는 단답형 문항이 다수여서 사고력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하다. 3기 때 소문항 수가 늘어났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했다. 2015학년도는 무려 10문항이었다. 11점 만점에 10문항이다 보니 1문항당 배점이 1점뿐이다. 단답형 문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문항 설계이다. 문항 수가 가장 적을 때는 2013학년도로 총 7문항이었다. 1점 문항 3개, 2점 문항 4개였다.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2점 문항도 1점 문항 2개를 합한 것과 거의 같다. 다음 문항은 그 한 예이다.

1. 최 교사는 다음의 학습 목표에 따라 말하기 수업을 하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3점]

1) 다음은 위 수업을 위해 최 교사가 계획한 지도 내용이다. A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쓰시오.[1점]

인사말 하기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인사말의 두 가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업 자료가 (A) 상황에서의 인사말임을 알도록 하고, 인사말 하기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해야겠다.

• A :

2) 다슬이의 인사말에서, ‘인사말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 중에서 찾아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2점]

• 기호 :

• 이유 :

기호 찾아 쓰는 문항은 선다형 문항과 다를 바 없다. 이유도 문항에 제시된 수업 자료를 참고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채점의 편리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국어과 문항은 단편 지식을 묻는 문항이 대부분이고 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고력 평가 문항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전체적인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 III. 국어과 임용고시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의 원칙은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평가의 타당도는 초등 교사의 국어 능력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초등 교사의 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몇몇 논의가 있었다. 대표적인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천택(2008: 319)은 초등국어 교사의 자질 구조를 초등국어 교육의 실제 수행 능력이라고 보고, 이를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였다.

〈표 2〉 초등국어 교사의 자질 구조

초등국어 교육의 실제 수행 능력						
지식		기능		태도		
국어 현상 관련 지식	국어 교육 관련 지식	국어사용 관련 기능	국어 교육 관련 기능	국어 관련 태도	국어사용 관련 태도	국어 교육 관련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지식</li> <li>• 국어사용 지식</li> <li>• 문학 지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교육 이론 지식</li> <li>• 국어 교육과정 지식</li> <li>• 국어 교수·학습 지식</li> <li>• 국어 교재 지식</li> <li>• 국어 평가 지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듣기 기능</li> <li>• 말하기 기능</li> <li>• 읽기 기능</li> <li>• 쓰기 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교육과정 해석 기능</li> <li>• 국어 교재 분석 및 재구성 기능</li> <li>• 국어 수업 설계 및 운영 기능</li> <li>• 국어 교구 제작 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문화에 대한 가치</li> <li>• 국어 문화 발전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말 살려 쓰기</li> <li>• 고운 말 바른 말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교육에 대한 흥미나 관심</li> <li>• 국어 교사로서 자기 계발 노력</li> <li>• 국어 교사로서 책무 완수 의지</li> </ul>

신헌재(2014 : 44-49)는 초등교사가 지닐 국어능력의 범주를 이원화하여 다음과 같이 능력을 분류하였다.

- 아동 중심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할 국어능력
  - ① 아동 이해를 위한 공감적 듣기 능력
  - ② 동심 이해를 위한 아동문학의 감상 향유 능력
  - ③ 국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 구현을 위한 PCK 구안 능력
- 메타학습적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확보할 국어능력
  - ① 국어 수업 중의 발문 및 피드백 발언 능력
  - ②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상담적 대화 능력
  -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한 토의와 각종 회의 진행 능력

이선영(2014 : 56-61)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초등교사의 사회적 관계 양상에 따른 국어 관련 직무 활동을 나열하고 관련된 국어 능력 요소를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관계	국어 관련 직무 활동		국어 능력 요소
학생	수업	교수 학습 계획 및 과정안 작성 학습자 중심의 교육 내용 제시 및 발문 목표에 따른 평가 및 피드백 제공 교과 수업에 대한 성찰 및 상황에 대한 대응력 언어적, 비언어적 언어 사용 모델(표준어 구사)	교과 수업 운영 능력
	수업 외	학생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공감 학생의 인성 및 언어 예절 지도 학생 관련 기록물 작성	학급 운영 및 인성 지도 능력
학부모	학생, 교과 및 학교 생활 관련 상담		행정 업무 능력
동료 교사	수업 및 학년 현안 합의 학교 행사 진행 및 조율		
상사 및 교육청 관계자	교육 현안 업무 보고 행정 서식 및 보고서 작성 학교 및 교육청 관련 과제 기획 및 수행		
기타	개인적 언어 생활 영역(직무 외의 영역)		

위의 세 논의들의 공통점은 국어 능력을 최대치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져 보면 모두 다 초등 교사가 지니면 좋을 능력들이다. 실제로도 어느 능력 하나라도 빠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들 능력을 전부 지필 시험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 취사선택의 기준 중의 하나는 지필 평가의 가능성이다.<sup>4)</sup> 태도 범주는 이러한 점에서 불리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어사용 능력들도 제외해야 한다. 이들 능력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배운 것들이어서 굳이 평가할 이유가 없다. 문제점을 논의할 때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독해 문항,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묻는 문항 출제는 재고해야 한다. 결국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초등 국어 교육과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임천택(2008)의 ‘국어 교육 관련 지식과 기능’, 신헌재(2014)의 ‘국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 구현을 위한 PCK 구안 능력, 국어 수업 중의 발문 및 피드백 발언 능력’, 이선영의 ‘교과 수업 운영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4) 이는 지필 평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된다.

가 필요하다.

평가 내용을 결정한 다음에는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는 소문항 수가 많아서 단답형 위주의 문항이 지나치게 많다. 일차적인 해법은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 수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항을 통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느냐이다. 바꿔 말하면, 임용 고시 준비생들에게 무엇을 공부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서술형이나 논술형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지금 수험생들은 인터넷 강의나 학원에 의지하여 시험 준비를 한다. 갈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잘 짚어 주는 강사는 인기가 높다. 강사가 교대 교수들보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답이 분명한 단답형 문항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학생들도 이를 배워 교사용 지도서 부록을 꽤 열심히 공부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록이 어느덧 가장 중요한 수험서가 되었다. 이런 시험공부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답이 없는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 자기 생각을 내적 논리를 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 문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능이 끝나면 교육부 관계자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출제했다고. 초등 국어과 임용고시 문항이 그러해야 한다. 교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임용고시 문항도 잘 풀 수 있는 문항 개발이 필요하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예언 타당도이다. 임용 고시는 수험생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지금은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학업 성취도 성격이 강하다. 수험생들은 시험 범위에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를 반복해서 공부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무쌍한 미래 사회와 그로 인한 교육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런 공부법은 미래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공 지능과도 경쟁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된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초등 국어과 임용고시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발 시험은 출제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서술형은 채점이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단답형 위주의 출제가 빈번해진다. 어렵더라도 이제 채점에 대한 이런 우려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들에게 창의력을 더 요구할 것이다. 정해진 답만을 찾아서 이를 암기하는 식으로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예비 교사들에게 합당한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은 초등 국어교육 종사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현행의 시험 형태를 유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문항 수를 줄여서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국어과 교육과 관련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문항을 개발하여 예비 교사들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답이 아닌 예시 답을 많이 보여 주고 평가 목표와 내용에 따른 채점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

\* 본 논문은 2017. 10. 31. 투고되었으며, 2017. 11. 21. 심사가 시작되어 2017. 12.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신현재(2014),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국어능력」, 『한국초등국어교육』 56, 35-5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선영(2014),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선발 및 경력 단계별 평가 개선 방안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56, 55-88,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임천택(2008), 「초등국어 임용고시의 실태와 개선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 315-33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전제상(2016), 「신규교사의 임용시험 선발관리의 한계와 개선방향」, 『교육논총』 53(2), 1-22,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연합뉴스(1990.10.18.), 교원임용고시제 파문 전국으로 확산, 연합뉴스, 검색일자 2017.10.31.  
사이트주소: <http://v.media.daum.net/v/19901018193800075?f=o>

## 초등학교 국어과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도영

지필 평가는 1990년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필 평가의 문제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문항이 독해 문제화되고 있다. 둘째, 국어 교육 또는 국어 수업 상황과 관련짓지 않고 단순 지식을 묻는 경향이 있다. 셋째, 과도한 수업 계획의 설정으로 인한 비실제적 문항 설계가 많다. 넷째, 서술형보다는 단답형 문항이 다수여서 사고력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의 원칙은 평가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정답이 없는 문항을 출제해서 암기력 위주의 시험공부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예언 타당도를 고려하여,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된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핵심어** 초등 임용고시, 초등 국어과 임용고시, 초등 임용고시의 문제점, 초등 임용고시의 개선 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est for Elementary School Candidates

Lee Doyoung

Paper-based evaluation began in 1990. They pose four problems. First, questions are becoming reading items. Second, there is a tendency to query simple knowledge. Third, there are several non-practical items. Fourth, there are several short answer items, so these evaluations are not assessing student's thinking abilit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improvements are required. The principle of improvement plans should ensure is the evaluation's validity. Subsequently, the question have to be redesigned, and the studying style that focuses on memorization ability by constructing a question without a correct answer, needed to be altered. Finally th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rough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considering the prophetic validity.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Test, Problem of Competition Test, Improvement Plan of Competition Test